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전주 만든다

전북 전주형일자리로 탄소섬유 국산화·지속가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전주시가 전북 전주형일자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주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참여기관 등이 모두 확정된 만큼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정'을 신청하는 등 '강한 경제' 전주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

△전주형일자리로 탄소섬유 국산화 '선봉'

전주시가 전북 전주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목표로 최근 방산, 수소차 상용화 등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탄소섬유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함이다.

시는 전주형일자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2027년 탄소국가산단이 완공된 이후 입주기업들을 전주형일자리 탄소산업 사업협동조합에 가입시키고, △국산 탄소섬유 공동구매 △공동R&D △공동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탄소 산업을 키워낸 전주시가 탄



지난 2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안홍상 효성첨단소재㈜ 부사장 등 24개 노·사·민·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형일자리 탄소산업상생협의회'가 열렸다.

소섬유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일자리로 미래신산업이 역동하는 전주

시는 또 전주형일자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10개 참여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1026억 원을 투자하고, 241명의 정규직 일자

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주형일자리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전주형일자리 이행계획서에 대한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노사민정 각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전북 전주형일자리가 전주 대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전북 전주형일자리를 통해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전주 가을밤 클래식으로 수놓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내달 6~7일 개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2023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깊어 가는 전주의 가을밤을 더욱 풍요롭게 물들인다.

전주시는 '2023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조직위원장 조화림)의 가을 공연이 오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축제는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주 시민들이 정통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는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가을 공연에서는 이블라헨 멘델스존과 글리에르, 슈베르트, 생상스, 마스카니, 마스네 등의 세계적인 작곡이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다채로운 공연과 연주를 통해 올해 비바체 실내악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가족음악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화림 전주비바체 실내악축제 조직위원장은 "10월 6일과 7일의 가을 연주회는 우리 모두에게 음악과의 진정한



2023 제7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포스터

한 해후를, 활력 넘치는 삶과 행복으로 가는 긴 탐색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숙 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문화도시 전주의 가을밤을 수놓을 클래식 축제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많은 시민이 즐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등 427곳 문 연다

전주시보건소, 비상 진료 상황실·감염병 비상대응반 운영

다가오는 6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전주시 병·의원·약국 등 427개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추석 명절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발생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 427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은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App)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응급',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6일 간의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는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덕진보건소에 위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쉬지 않고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보고 및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단 설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 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자광,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대상지선정 전격 신청

"전주 랜드마크로서 역할 다할 수 있는 사업 이룰 것"

〈주〉자광은 지난 22일 전주시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 중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전주시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이달 22일을 첫 시작으로 대상지선정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표명했다.

관광타워복합개발은 그동안 방치된 폐 공장부지를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전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청년일자리창출, 1,000만 관광객 방문 등 유발효과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자광은 "전주에서 금번 고시된 지침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제정되었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준비한 전주시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 등 절차를 통해 관광타워복합개발 사업이 완



〈주〉자광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전주시청 공보실에서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전주경제의 도약은 우범기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하고, 관광타워복합 개발사업은 많은 전주

시민들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 만큼 〈주〉자광은 기업의 신념과 이념을 바탕으로 반드시 완성해 전주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김옥기 기자

라온 체육센터 수영 강습생 모집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라온 체육센터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수영 강습생을 모집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25일부터 이틀간 라온 체육센터 수영강습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5개의 수영 강습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 반의 정원은 23명이다. 신청인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습반은 10월 10일부터 운영되며, 강습료는 한 달에 성인인 7만 원, 청소년이 6만 원이다. 라온 체육센터는 약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장한다.

라온 체육센터는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연면적 3909㎡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